

[오피니언]

光日春秋

전 순 옥



지난 가을 나는 텔레비전을 내다 버리고 다시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배경은 아주 간단하다. 쉬지 않고 벌어지는 산업 드라마의 '한국정치현장을 지켜봐야 하는 나의 인내력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이다. 날이면 날마다 텔레비전 화면을 장식하는 그림은 양복 입은 정치꾼들이 벌이는 부정직하고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는 물론 동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총고나 조언자가 되기도 꺼려하는 정치풍토에서, 그들의 행실은 좋게 말하면 초등학생수준에도 못 미칠 것 같고 나쁘게 표현하면 범죄자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물론 나는 지금도 그들의 수치스러운 품행을 신문에서 읽고, 그들이 우스꽝스럽게 늘어놓는 변명들을 라디오를 통해 듣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가볍다. 이러한 망신스러운 사태가 계속해서 연출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인 나의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느끼는 또 다른 좌절감은 우리나라 공적인 인물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국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민들의 적절하지 못

한 행동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바닥에 의원들이 서로 뒤엉켜 치고받는 폭력적인 광경을 외국인이 본다면 그들이 받는 한국정치의 인상은 어떤 것일까 하는 염려를 할 때가 종종 있다. 몇지간한 정치꾼들의 손을 거쳐 전문학적인 현금뭉치가 오가다가 발각되는 사태가 수 없이 벌어지는 저속한 한국정치를 지켜보면서 국외적으로 보이는 한국정치는 '나나공화국' 직전 상태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텔레비전을 내다버리고

너그러운 평가를 하자면, 올림픽경기에 나가도 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바보스러운 정치꾼들은 이것을 믿고 자신들이 이 경기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까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그들이 특별한 올림픽경기종목에 출전한다면 금메달은 물론이고 은메달 동메달까지 깍쓸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불행하게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느끼는 또 다른 좌절감은 우리나라 공적인 인물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국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민들의 적절하지 못

19세기 영국 귀족 정치론자 이었던 존 액톤(Jane Acton)이 한때 이런 말을 했다. '권력은 부패의 온상이고, 완전권력은 완전부패를 양산 한다'. 이러한 논리의 입증을 우리는 다른 멀리에서 찾기보다는 한국정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아무튼 애초에 텔레비전은 내다 버렸지만 별로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신문 타이틀인 '남성권력붕괴 여성구데타'를 '남성부패정치청산 여성정치희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여성 국무총리 지명자가 국

<참여성노동복지대표>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 일 주



양 일 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후준비의 두 기둥은 기업의 생생직장보장과 자녀의 부모부양이었다.

오늘날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제도로의 변화 등에 따라 노인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노후에 어디서 빌 하며 살까?

주변을 돌아보면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들게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와 반면에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 노후생활에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연금에는 첫째,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이 있고, 둘째,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금(퇴직연금)이 있으며, 셋째, 개인 각자가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흔히 3층 보장체계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직장인의 혜택이며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1층인 국민연금만이 다수의 국민에게 적용되어 보편적인 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후 생활설계의 현실

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인 것이다. 넉넉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전문가들은 건강, 대인관계(친구), 일, 취미(여가), 돈의 5가지 필수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5가지 필수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돈(노후생활자금)은 인간이라면 빼어낼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노후생활자금 마련에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되는 자금이라 소홀히 쉽다.

그러므로 항상 노후생활자금을 염두에 두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은 매월 월급처럼 나오는 연금소득으로 확보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사망, 장애, 퇴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소득상실 위험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으므로 노후생활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연금 등을 잘 활용한 노후설계는 우리에게 중요로운 노후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

수입쌀 파고! 넘고 나면 희망이 보인다

또 전남도에서는 타시도에 없는 쌀예약 판매 전담부서를 두고 수도권 등에 쌀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이다.

남미의 온두라스가 쌀 시장을 개방한 지 15년 만에 농촌은 피폐해지고 소비자는 전량 수입되는 쌀을 비싼 값에 사 먹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물려 있다. 대안에서는 쌀을 수입 개방하면서 가격경쟁에 집착하고 쌀 품질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대처에 실패했지만 일본에서는 철저한 품질경쟁으로 수입쌀 파고를 이겨낸 바 있다.

수입쌀에 대비해 전남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이나 온두라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 일본의 예를 배워서 일본보다 더 좋은쌀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 생산·판매·소비 등 각 분야별로 힘을 합해야 한다.

우선 생산자 즉, 농민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한다. 전남도에서 지난 1월 서울거주 기혼여성 25~59세, 300명을 대

쌀 판매를 지원하는 농협이나 공직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무원들은 프로페셔널한 마케팅 정신을 가져야 한다. 종전의 전시성 행사나 주변 관리로 별문제 없이 해를 넘기는 자세보다는 성과주의에 의한 무한봉사자세 만이 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비자의 태도도 중요하다. 최근 조사된 우리민국의 쌀 소비성향을 보면 40대이하의 젊은층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데 반해 50~60대 소비층은 값싼 쌀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내 쌀값이 외국쌀에 비해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가 매일 먹는 쌀만큼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우리쌀을 먹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쌀농업과 관련된 사회 각 부문이 이 같은 마음자세로 합심 노력한다면 쌀 시장 개방 파고는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 파고를 넘기면 머지않아 희망찬 농업 한국이 보인다.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

'정숙' 사라진 대학도서관 지성의 전당 맞나

정숙이란 단어가 부끄러운 대학도서관의 소란스러움에 대해

모두들 부끄러운 마음은 안느끼는지 원.... 얼마전 책도 불경 차료도 찾을 생각으로 광주시 한 대학 도서관을 찾았다. 오후라서 그런지 자리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도서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정숙'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였다. 복도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휴대전화 진동소리를 비롯해 아래에 코를 골며 자는 학생까지 있었다. 높은 구두를 신고 요란스럽게 걸어다니는 학생, 슬리퍼

를 질질 끌고 다니는 학생도 있었다. 너무나 시끄러워 머리 좀 식히고 커피도 한 잔 할겸 휴게실을 찾았는데, 휴게실의 모습도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쓰여있는 종이컵, 군데군데 널려있는 신문들, 휴게실 바닥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등으로 보기 흉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지금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세상을 좀 먹고 사회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제발 공부하고 싶은 책을 보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민경·광주시 동구 대의동

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병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주류나 음료를 구입할 때 미리 병값을 계산하고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가가 미리 공병값을 지불하고도 돌려받을 때는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무안을 당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지만 모두 이웃들인 텃개를 가지고 구걸하는 것 같아 불쾌하고 창피했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병보증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 병환불을 거부하는 도·소매점에 대해 과태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오피니언]

[시설]

分裂 치유하고 豊饒 일구는 正論 평했다

-창사 제54주년에 부쳐

광주일보가 오늘 창사 54주년을 맞았다. 6·25 전쟁의 폐허속에서 태동한 광주일보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격동의 현장 중심에서 역사의 증인이자 지역의 과수꾼으로서 그 본분을 끊임없이 수행해왔다. 그동안 광주일보는 지방분권화시대의 기수로서 낙후된 호남지역이 동북아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왔다. 무엇보다 호남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참다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우리는 창사 54주년에 만족한 채 자축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대를 모았던 6차 회담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아직도 요원하다. 오랫동안 우리 안보의 중심 축이었던 한·미 동맹은 군율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의 독도 유영권 분쟁 등 동북아 주변국가와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장기침체를 벗어나는가 싶던 국내 경제는 사상 유례 없는 고유가와 환율하락의 직격탄에 휘청거리고 있다. 수출 쟁쟁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를 벼텨왔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정부의 낙관론과는 반대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심화된 계층간 세대간 갈등은 국민화합을 기로막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반부족자는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권위주의 자체체제가 사라지면서 대화와 타협 대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 강조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해묵은 이념갈등 역시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광주일보는 이같은 내부 갈등과 대립을 제시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삶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선진 농법도입으로 농도 전남의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전남의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친화사업 육성방안을 점검하는데도 노력할 것이다.

광주일보는 창사 54주년을 맞아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로 인한 정보양극화 해소를 주창하고 나섰다. 저소득·저학력 층의 정보화 소외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통합의 장애요인이다. IT 강국이라는 화려한 조명속에 숨겨져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없애지 않는 한 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분연히 나섰던 호남인들은 또 다시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 대표자로서 광주일보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한다. 광주일보는 보편적 사고로 지역민과 함께 변함없이 정도언론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각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형성에 그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無等 鼓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04년 윤리경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7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 7가지 전제조건 가운데 '지속적인 윤리근육 단련'이라는 다소 생소한 조건을 내놓았다.

'윤리근육'이란 말은 미국 텍사스 대학 스티브 살브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처럼 옳은 일을 하고 존경받는 행

동을 하며 정직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사망, 장애, 퇴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소득상실 위험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으므로 노후생활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연금 등을 잘 활용한 노후설계는 우리에게 중요로운 노후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노후생활자금을 염두에 두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은 매월 월급처럼 나오는 연금소득으로 확보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않다. 두 기업 모두 이런 저를 끌어당기는 행위에 경직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근육은 꾸준히 단련하지 않고 갑자기 과도하게 사용하면 파열된다. 기업의 윤리경영도 최고 경영자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여론에 떠밀려 마지 못해 하는 갑작스런 윤리경영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현대화 그룹이 19일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1조 원 규모의 오너 사재 사회회원 등의 다소 과격적인 사회공헌

/정체현 사회2부장 hjh jung@kwangju.co.kr

회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이나 오너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윤리경영은 이제 기업존재의 필수조건이다. 윤리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속적인 윤리경영 단련'이 필요하다.

/정체현 사회2부장 hjh jung@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편집국장 池炯原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기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FAX 222-4918	